

▶▶ 전국체전 출전 전북선수들 격려 잇따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을 응원하는 격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체육회 김동진 부회장 등이 익산을 방문해 종목 선수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화이팅... 후회없는 경기 펼쳐주세요”

송하진 도지사에 이어 전북체육회 김동진 부회장
김승민 스포츠진흥본부장 등이 종목 선수들 격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을 응원하는 격려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 선수들을 격려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도체육회 김동진 부회장과 김승민 스포츠진흥본부장 등은 익산지역을 방문해 배드민턴과 탁비, 유도, 세팍타크로, 레슬링 등 종목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동진 부회장은 “전북체육의 위상을 높이 기위해 맹훈련중인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

고 고맙다”며 “부상없이 컨디션 조절을 잘해 이번 전국체전에서 후회없는 경기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전주대학교를 방문해 축구와 농구, 자전거, 검도, 씨름, 태권도 등 전주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펼쳐지며 이번 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1600명(선수 1217명·임원 383명)이 출전한다.

/장은성 기자



유도선수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전북 농아인체육대회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서

‘제39회 전라북도 농아인체육대회’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주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화합과 친선도모를 위함이다. 또한 사회체육 활동을 통한 재활능력 함양 및 건전한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전라북도농아인협회(협회장 김상표)가 주최하고, 사)전라북도농아인협회 전주지회(지회장 송재승)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14개 시·군별 선수단 구성 및 시·군별 경쟁 방식에 의한 경기 진행을 추진 방침으로 하고 있다.

대회 1일차에는 볼링, 배드민턴(남,여), 슐런, 탁구경기가 열리고, 2일차에는 족구, 디스크골프, 줄다리기, 고리던지기 등이 펼쳐진다.

김상표 협회장 및 송재승 지회장은 “전라북도 농아인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긍정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체육대회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및 자신감 회복, 그리고 우수 선수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오전 11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사)전라북도농아인협회 관계자 및 회원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LX 사이클 선수단
재능기부 ‘앞장’

전라고 학생 등 대상 유망주 교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이클 선수단이 재능기부에 적극 나서고 있다.

LX 사이클 선수단은 18일 전주 벨로드롬에서 삼례중과 전라고 사이클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북 사이클 유망주 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사이클 유망주를 육성하고 국민체



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날 장산재 코치와 LX 사이클 선수단은 1대 1 맞춤형 훈련 등을 했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특히, 2006 도하 아시안게임 3관왕,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등 현역시절 한국 사이클

을 대표했던 장산재 코치는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쏟아냈다.

한편, LX 사이클팀은 지난달 열린 양양국제 사이클대회에서 8개 종목 중 5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확보하는 등 국내 도로 사이클의 최고봉임을 입증했다.

/장은성 기자

MLB 최지만, 시즌 16호 솔로포

LA 다저스와의 원정경기서

최지만(28·탐파베이 레이스·사진)이 시즌 16호 홈런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최지만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 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루수 겸 4번타자로



선발출전, 6회초 솔로 아치를 그려냈다.

1-2로 끌려가던 6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에 나온 최지만은 다저스의 볼펜투수 페드로 바에즈의 5구째 한가운데로 불린 체인지업을 공략해 동점 홈런을 터뜨렸다. 비거리 128m짜리 우월 홈런이다.

최근 3경기 만에 안타를 때려냈다. 지난 12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2홈런을 친 후 6일 만에 다시 손맛을 봤다.

최지만은 1회 첫 타석에서 1루수 앞 땅볼, 4회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왔다.

/뉴시스

Gimje JIPYEONGSEON **Rice**
International Forum

김제 지평선 **국제 쌀포럼**

2019. 9. 30^{mon} - 10. 2^{wed} /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쌀의 진화
미래와 세계를 잇다

주최 김제시

주관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

공동주관

한국작물학회

JBM(사)전북MICE발전협의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북도